설교가 칭의의 남발은 아니다

(열왕기상 22:1~12)

5.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6.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7.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8.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9.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0.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11.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2.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설교가 칭의(稱義)의 남발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설교가 칭의(稱義)의 남발은 아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경하는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몇 번 만나 뵌 적은 있지만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몇몇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사석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타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에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설교'라고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말씀이라고 하시자 후배 목사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한 달에 4주를 쳐서 네 번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번만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용어가 평신도 분들이 듣기에는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목회의 부흥을 마치 어떤 수단 하나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 설교해서 한 번 감동을 주면 된다.'는 말씀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오셔서 강의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말씀 한 가지를 더해주셨는데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칭의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가 예수 믿음에 따르는 구원에 따른 칭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칭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어떤 개념으로 하신 말씀인지를 진심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칭의'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의미는 모른 채로 남겨두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얼마나 많이 되풀이해서 생각해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칭의'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는 옳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옳다는 확신은 구원과 관계되어서 내 인격이나 존재에 대해서만 아니라 삶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도 필요합니다.
자기합리화라도 해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과 확신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가운데 행동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조폭의 세계에서도 그 세계 안에서 통하는 옳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약을 수입하는 보스에게 충성하는 것이 의이고, 등을 돌리고 칼을 꽂는다면 그것이 불의입니다. 마약을 파는 그 자체는 매우 그릇된 일이지만 그 사회에서는 보스에게 충성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오른쪽 집을 털지 왼쪽 집을 털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선택한 것을 옳다고 믿을 때에 도둑질 하는 과정에도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옳음과 그름을 나누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내버려두고서라도 잘못된 기준으로라도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점은 곽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비중이 큰 것이 말씀입니다. 어려운 점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어쩔 수 없이 목회 상황과 교회 사정에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교회의 상황이 들어오면 그것이 조각칼이 되어서 말씀을 대할 때에 상황에 맞게 말씀의 내용을 다듬어갑니다. 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유리하게 적용하게 되고, 교인들이 원하는 바에 귀 기울여서 맞추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교인들의 뜻이 다 뒤엉켜서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의식이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밖에서 볼 때와 다르게 목사님 자신은 옳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상황이라는 조각칼로 말씀의 내용을 조각해서 전하고 있으면서도 힘주어서 강조하고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설교 속에서 칭의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곽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칭의를 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곽 목사님의 진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00명의 선지자가 칭의를 남발하고 있는데 마치 칭의 제조기들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아람이 차지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은 갈릴리 호수의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지고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본래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아합 왕의 부친 오므리 왕 때에 아람의 벤하닷 1세에게 빼앗겼던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2차 전쟁에서 벤하닷 2세가 북 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패하게 되자 살려달라고 빌고 그 땅을 돌려주기로 하고 화친의 약조를 맺었습니다.
벤하닷을 죽였어야 했지만 아합이 용서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벤하닷 대신 아합을 죽이시겠다는 예언을 하셨고, 3년이 지나는 가운데 아람의 벤하닷이 다시 전쟁패배로 인해서 미미한 국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합 왕 혼자서는 대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람이 커져버리게 되자 아합은 남 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정치적으로 아람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합니다.
남 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더불어 성경에서 3대 종교개혁의 왕으로서 뽑히는 사람입니다. 4대 왕으로 한다면 여기에 아사 왕이 포함됩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을 위한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명색이 선민이었던 아합 왕도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찬성해서 무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조찬기도회를 하면서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목사님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400명 선지자들에게 묻자 전부 아합 왕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

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 선지자는 설교를 잘하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시청각 설교를 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뿔처럼 아람을 찔러 무찌를 것이라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동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에 마음이 붙어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빼앗긴 땅 길르앗 라못에 마음이 붙었습니다. 그 땅을 회복해야 만족과 기쁨을 얻으리라고 마음이 길르앗 라못에 결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지만, 아합 왕의 마음은 지금 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팔렸다'는 것은 마음을 준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팔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렸다'는 것은 내용상 똑같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만족과 기쁨의 이유라고 믿기 때문이고, 아합이 길르앗 라못 땅에 마음을 둔 것도 그 땅을 얻어야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의를 얻는데 이것이 바로 칭의의 남발이고, 칭의의 제조업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400명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들이었으나 이들은 칭의 제조업자의 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목회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칭의 제조업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뿔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힘으로 마음을 팔고 있는 대상과 결합하라는 것입니다.
돈 사업 자녀의 형통 건강 등 이런 것들과 연결된 상태에서 뿔과 같은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승리하라는 것이고 이 상태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아합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합은 죽게 되는데 아합은 칭의를 강요하는 자였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마음을 팔아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대상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목사님들을 유도해 갑니다.
친구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교

인들이 웃거나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반응하는 것들을 적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좋아한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감동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의 제조기로 사는 것입니다.
칭의에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는 고덕동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시는데 그분 말씀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교인들은 칭의 제조업자들이 공급하는 남발되는 칭의를 그리워하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참된 선지자 미가야가 나오는데 아합은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미가야는 항상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하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 대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선지자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만히 교인들을 살펴보고 듣고 싶어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칭의를 남발하는데 이렇듯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상황으로 다듬어진 설교를 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간혹 찾아오셔서 '십자가만 이야기하니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십자가 말고 다른 말은 없느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가야가 아합에게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밖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합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으로 믿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팔고 있는 한 미가야로서는 칭의를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미가야와 같습니다. 왜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결합해서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답답해하고 근심합니다. 거기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칭의를 남발하는 것이므로 그 상태를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루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함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하늘로 가게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사람들이라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에 마음을 박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하늘로 보낼 수는 없지만 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제 나타났느냐고 할 정도입니다.
목사님 당사자들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깊어짐이 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는 그저 언어의 반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반복되는 언어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보다 오늘 1cm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는 언어가 아닌 지금의 사건이 됩니다. 1cm 더 친해지는데 십자가를 생활화했기 때문이고, 십자가 생활화가 아니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함으로서 하늘에만 기쁨이 있다고 결단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을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친해짐이 없다면 십자가는 언어의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1cm라도 하나님과 친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어제보다 오늘 더 친해진 설교자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에 듣는 사람에게도 오늘의 사건으로 전달이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들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을 때에 설교에 쓸 재료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듣기 싫은 십자가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설교에서도 십자가는 사건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도 십자가에서 죽겠음을 촉구하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의는 남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칭의 대신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죄적 체질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팔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것으로 우울해하고 답답해하며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설교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며 옳다 잘했다 하시며 그 사람을 껴안아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칭의가 꼭 필요합니다만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칭의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영적 자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